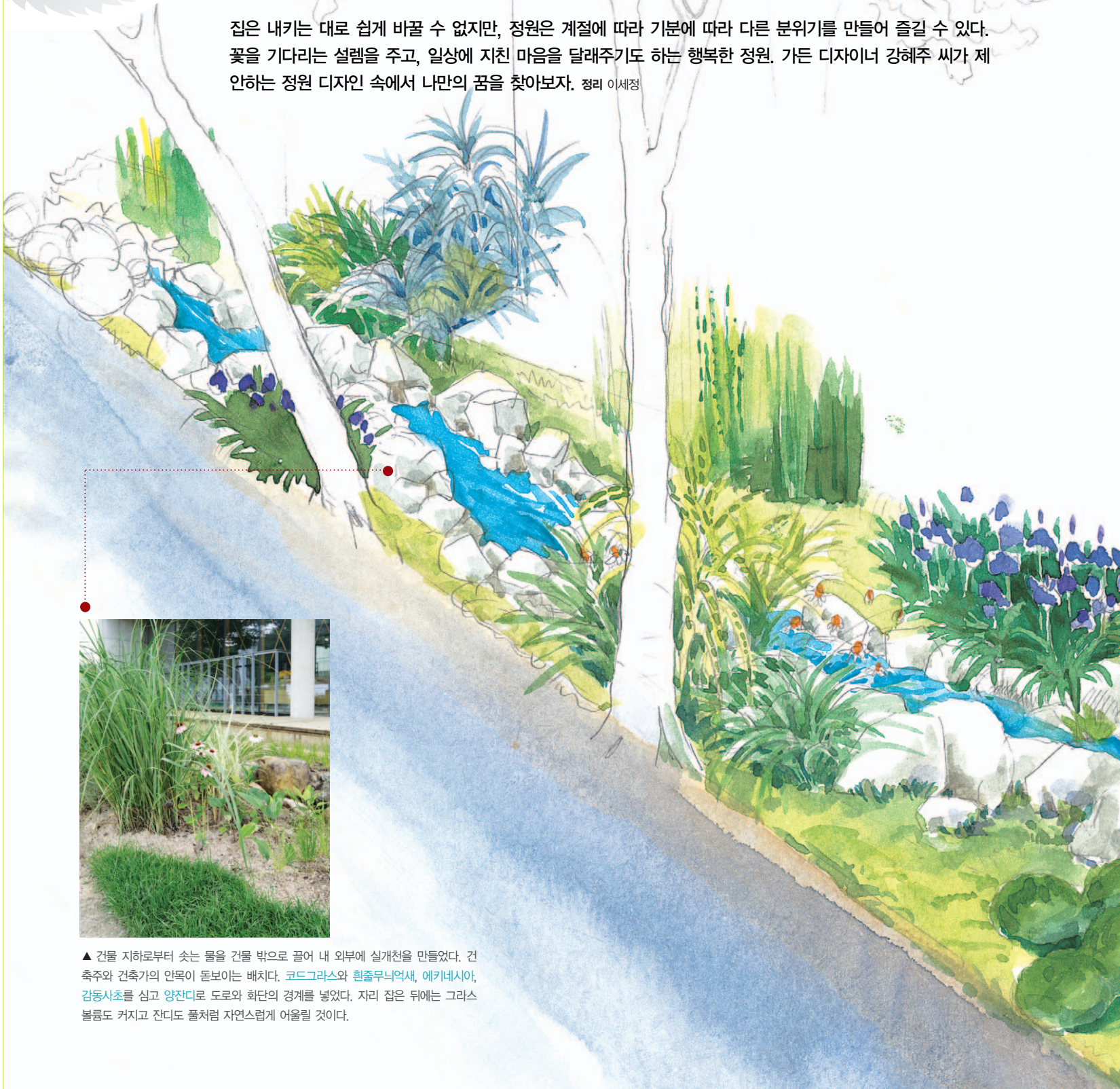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②

모던한 노출콘크리트 건물의 정원

집은 내키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정원은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즐길 수 있다. 꽃을 기다리는 설렘을 주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행복한 정원. 가든 디자이너 강혜주 씨가 제안하는 정원 디자인 속에서 나만의 꿈을 찾아보자. 정리 이세정



▲ 건물 지하로부터 솟는 물을 건물 밖으로 끌어 내 외부에 실개천을 만들었다. 건 축주와 건축가의 안목이 돋보이는 배치다. 코드그라스와 환줄무늬억새, 에키네시아, 감동사초를 심고 양잔디로 도로와 화단의 경계를 넣었다. 자리 잡은 뒤에는 그라스 볼륨도 커지고 잔디도 풀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이다.



▲ 건물의 삼면을 도는 물의 발원지다. 수변은 무늬큰고랭이, 골풀, 속새를 군락으로 선이 간결하도록 하고, 꽃창포를 군식하였다. 앞면은 옆 터에서 이식한 회양목을 크기별로 모아 심어 비눗방울 모양을 만들었다. 자라면서 점점 사랑스러운 모양을 잡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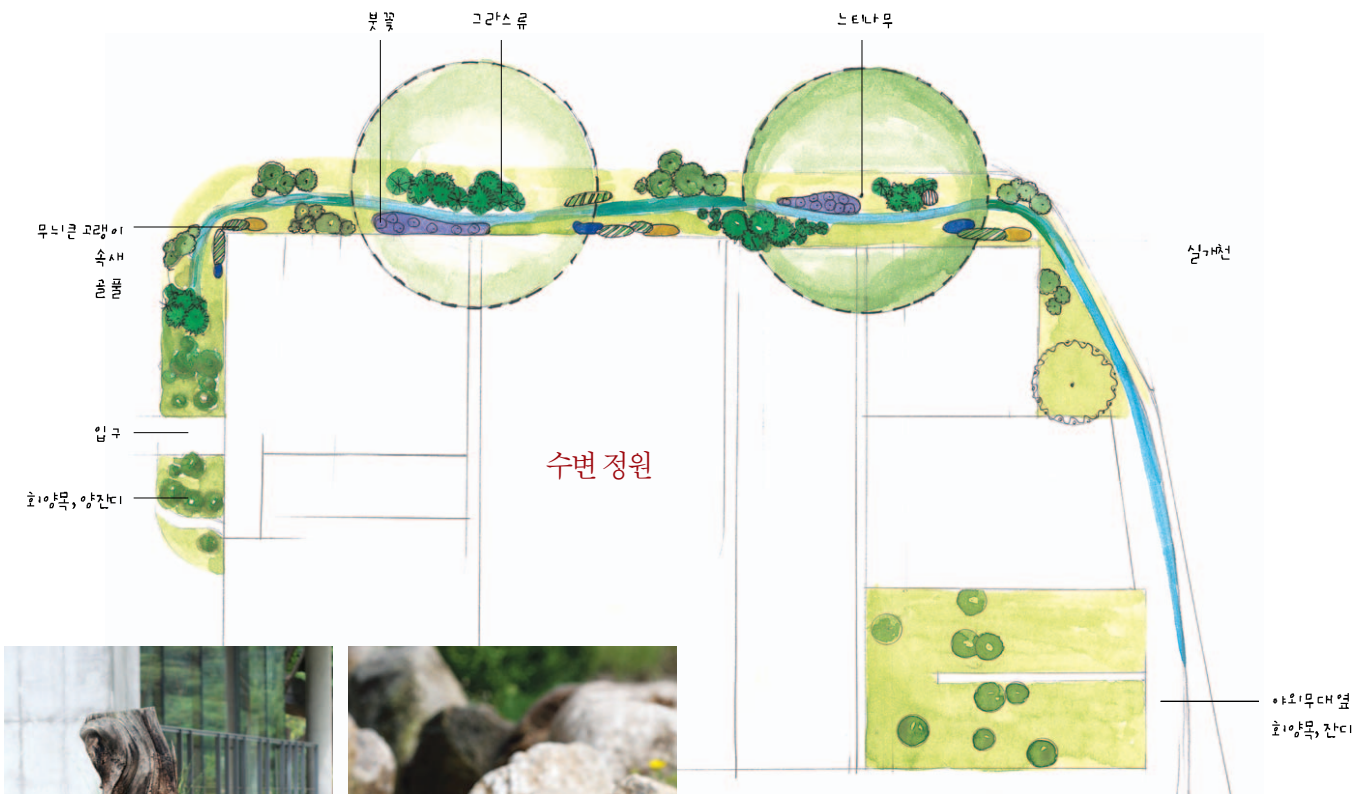
정원이 조성되는 곳은 모던한 노출콘크리트 형태의 건물로, 추후 레스토랑이 오픈할 예정인 상업 공간이다. 깔끔하고 단정한 선을 위주로 디자인된 건물은 자칫 정원에 묻힐 수 있어, 되도록 식재와 컬러를 절제해 디자인했다.

건물 주변은 크게 회양목으로 버블(bubble)을 만들고 실개천 돌레로 수변식재를 했다. 건축주 내외는 되도록 꽃과 식물이 튀지 않게, 나아가 흙이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정원을 만들고자 했다. 상업 공간이다 보니 친박한 화려함은 아니더라도 은은한 컬러즘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오래 이곳을 가꾸어온 건축주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색을 포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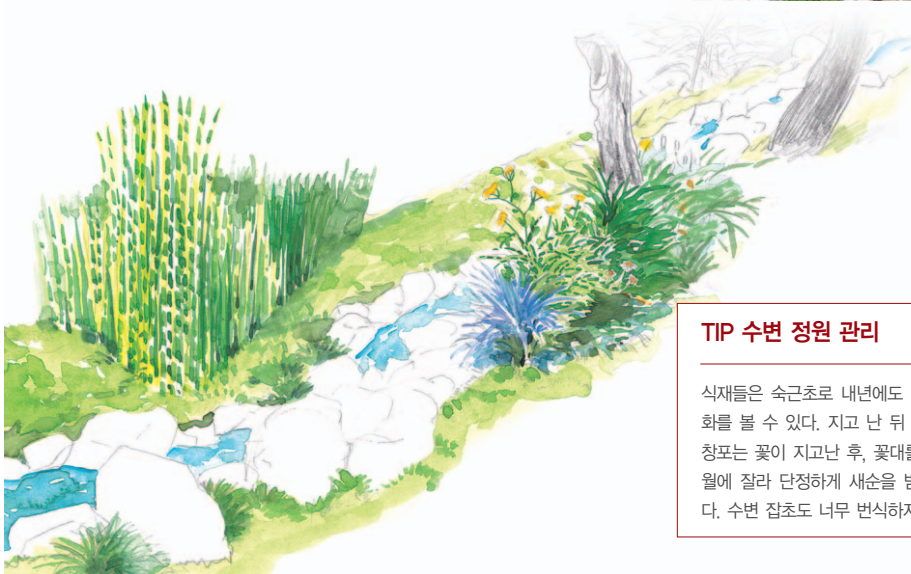
디자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지불 가능한 금전상황, 원하는 식재와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시장상황,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그 외 주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취향을 맞춰가는 현장상황이다.

예산에 맞지 않는 고가의 소재를 쓸 수 없고, 작업 일정 안에 맞추어 모든 것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넉넉한 시간과 경비, 열정이 없이는 전국을 뒤져서 원하는 식재를 모두 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현장에서는 서로의 의도와 견해를 읽어 적절히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디자이너가 아니고 건축주가 살 집, 더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즐길 정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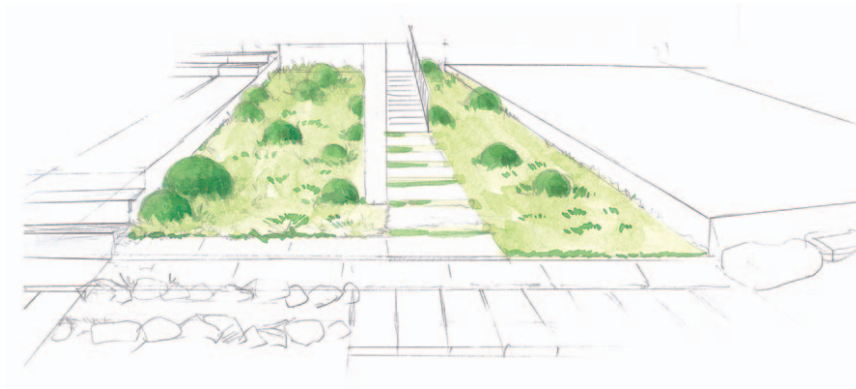
- ▶ 가을가 고사목 근처에는 호피무늬역새와 흰줄무늬역새 군락 사이에 에키네시아와 목수국, 오이풀을 심어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러운 운치를 풍긴다.
- ▶ 돌 틈에는 작은 물싸리 군락들은 두어 은은하고 아기자기하지만 산만하지 않도록 했다.



- ▶ 건물 주변의 잡풀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정원을 당부한 건축주 덕분에 아련한 풀생 느낌의 수변이 됐다. 이른 봄 동의나물이 꽃을 피울 것이다. 돌 틈에 박은 미니 석창포는 오가는 사람의 발에 밟힌 듯, 그 자리에 오래 있던 것 같은 어울림이다.
- ▶ 세엽제브라, 좀버들, 갯모밀을 심었다. 이미 돌쌓기 시절부터 자리 잡은 달개비가 수생식물이 되어있지만 뽑지 않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날아와 쉬구가 되는 이들이 이 공간을 더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TIP 수변 정원 관리

식재들은 숙근초로 내년에도 나는 것들로 에키네시아는 피고 진 꽃대를 잘라주면 2차 개화를 볼 수 있다. 지고 난 뒤 둥근 꽃방망이 모양도 아름다워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꽃창포는 꽃이 지고난 후, 꽃대를 잘라주면 단정한 입을 즐길 수 있다. 역새와 그라스류는 3월에 잘라 단정하게 새순을 받고 땅에 거름이 너무 많아 지나치게 번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수변 잡초도 너무 번식하지 않도록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제거한다.



버블 정원

회양목과 독새, 감동사초로 카펫정원이 되는 모던하고 심플한 정원이다. 이 터를 50년 동안 가꾼 건축주 가족 덕분에 거목의 아름다운 회양목을 이식해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 회양목은 일 년에 두 번 정도 등근 모양, 비누거품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해 주지만 독새나 감동사초는 그대로 둔다. 잔디는 보도라인 외에는 적당히 길러 풀처럼 키워 어울리게 해야 자연스럽다.



주변 정원

▲ 2층 테라스의 화단부분은 토심의 깊이가 없어 뒤쪽 마운딩과 물결 모양의 잔디로 구성했다. 이 컨셉은 막역한 사이인 (주)플로시스 대표가 즉석에서 제안한 디자인이다. **줄무늬역새균락, 유키**와 돌을 배치하고 조명을 두었다.

▼ 지하 공간은 판석 사이에 양잔디를 식재해 겨울에도 컬러가 있도록 했다. 판석은 건축가가 미리 콘크리트로 제작해 놓은 것이다.

▶ 이 터에는 우리나라에 10여 그루 밖에 남지 않은, 오래 된 뽕나무 4그루가 모여 있다. 큰 느티나무만한 뽕나무 아래는 그늘이 깊어 화사한 꽃을 볼 수는 없다. 대신 **호스타** 종류와 **관중, 고사리류**로 식재하고 오솔길을 두었다. ▲



■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투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작품으로는 '걸리버가 머무는 자리', '라면정원', '머더스정원' 등이 있고,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이너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ildgarden3@naver.com